

2025년 4월 30일(수)

16: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팀

담당 : 이소현 활동가 (070-4760-1208) 김영환 정책국장 (010-8205-0987)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2025 케어테이커 돌봄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발간

서울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182명 설문 결과 발표
"돌봄은 공공의 책임" 인식 뚜렷

월 수입의 21.8%를 고양이 돌봄에 사용,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청결'과 '길고양이 TNR'을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025년 4월 30일,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2025 케어테이커 돌봄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182명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돌봄 활동 실태와 관련 인식, 제도적 요구, 사회적 갈등 경험 등을 조사한 것이다.

*길고양이에게 자발적으로 밥을 주고 TNR(중성화 후 방사)등 책임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시민을 뜻함

조사 결과, 서울시 케어테이커의 평균 연령은 52.8세, 95.1%가 여성으로 확인되었으며 1인당 평균 6.5곳의 밥자리를 주 7.5회 방문해 18.3마리의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고양이 돌봄에 월수입의 약 21.8%를 지출하고 있으며, 활동 시간은 대부분 오후 6시~자정 사이였다.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주변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도 동물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94.5%가 "길고양이 돌봄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응답했다. 응답 이유로는 '동물보호는 국가의 법적 의무'(36.6%), '길고양이에게 안전한 사회가 곧 사람에게도 안전하다'(33.1%)는 점을 꼽았다.

반면, 길고양이 돌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과 위협'(51.1%)이 지목됐으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청결 강조(73.6%), TNR 병행(61.5%)이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케어테이커는 단순한 '밥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공의 빈틈을 메우는 자발적 동물보호 실천자"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때 길고양이와 사람의 진정한 공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의 길고양이 정책의 방향과 제도적 기준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책임 있는 길고양이 돌봄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는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자료실(<https://www.ekara.org/report/ekara>)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끝.



동물권행동 카라